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24일)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1월 21일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운집한 5000여 스님들은 종교편향 종식과 불교왜곡 근절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고불문 낭독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5천여 스님들 외침…"종교차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 전국승려대회 봉행

글=송지희 · 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 노덕현 기자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 들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5000여 스님의 결기가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를 메웠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를 뒤흔든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경책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 외호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불교왜곡과 종교편향이 없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발원했다.

1월 21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는 차별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석이었다. 특히 수십년간 반복돼 온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불교계 규탄여론이 결집한 만큼, 매서운 경책의 메시지가 함께했다.

승려대회에는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본사의 본말사와 전국선원수좌회 및 전국비구니회 소속 스님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전국 사찰의 스님들도 마음으로 함께했다. 오후 2시 승려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과 명고가 조계사에 울리던 시각, 전국 사찰에서도 명종 6타로 뭇생명에게 승려대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명종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지 못한 불제자들을 향한 경책, 그리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부처님 정법에 따라 세간을 교화하고,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원력으로 종교편향을 근절해 불교자주권 수호를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삼귀의, 반야심경으로 막을 올린 본행사는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스님들은 고불문에서 전국승려대회의 취지와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의 의지를 부처님전에 고했다.

고불문을 대표낭독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일제강점기 이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은 불교와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고자 노골적인 종교 편향과 차별 정책을 펼쳤고, 오늘날까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단의 지속적 안녕이 위협받고, 도량의 청정과 납자의 가풍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벽안납자들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파사현정(破邪顯正) 원력으로 분연히 일어나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라는 승가 갈마를 열게 됐다"며 "불보살의 증명으로 저희들이 오늘 내딛는 이 걸음이 교단의 자존과 자주를 성취하고 종교간에 상호 존중과 화합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봉행사를 낭독하고 있다.

1월 21일 조계사에서 대결집
"파사현정 기치로 불교외호"
종정예하 교시서 화합 당부
정부 여당 경책여론 드높아
자성 · 성찰 참회진언 낭독도

스님들은 참회진언을 통해 그동안 숱한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으로 인한 상처를 되짚고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수호하지 못한 불찰을 참회하고 성찰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중생제불불상침(衆生諸佛不相侵)이며, 산자고혜수자심(山自高兮水自深)이로다. 만별천차명저사(萬別千差明低事)이니 자고제처백화신(鷓鴣蹄處百花新)이로다"라는 교시를 내렸다. 교시는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만가지 천가지로 다름이 모두 이 진리를 밝힘이니 자고새 우는 곳에 백가지 꽃이 새롭도다"는 의미다.

이어 종정예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하게끔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며 "중생이 화합하니 법화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한다"는 가르침을 설했다.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행사에서 "역사 속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속에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이천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홀대받고 있다"며 "불교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종교간 분쟁이 없는 모범국가의 토대를 제공해 왔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승가공동체의 결집은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이자 종교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죽비경책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제도를 정비하여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승려대회에는 한국불교를 이끄는 각계 대표스님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도 대회연설을 통해 "파사현정의 기치를 드높이자"고 천명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승려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이 결의문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전국승려대회의 취지와 숭가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참석해 전국승려대회에 뜻을 함께하는 재가불자들을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했다.

특히 선광 스님은 대표낭독한 결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편향 불교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정부와 여당은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여당은 전통문화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스님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통해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변화된 한국을 만들어가길 서원했다. 한편, 이날 봉행위가 고심 끝에 정부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황희 문체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회발언을 수용했으나, 현장 스님들의 반발로 중단되기도 했다.

〈관련특집 2 · 3 · 4 · 5면〉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大韓佛教曹溪宗 宗正教示

衆生諸佛不相侵(중생제불불상침)이며,
山自高兮水自深(산자고혜수자심)이로다.
萬別千差明低事(만별천차명저사)이니
鷓鴣蹄處百花新(자고제처백화신)이로다

중생과 모든 부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며
산은 스스로 높고 물은 스스로 깊음이로다.
만가지 천가지로 다름이 모두 이 진리를 밝힘 이니
자고새 우는 곳에 백 가지 꽃이 새롭도다.

모든 불자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계에 두루 하게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이 화합하니 법화(法華)의 향기가 시방세계에 진동하네.

佛紀 2566年 1月 21日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真際 法遠